임성재 또 역전승… 이정민 메이저 첫 승

임, 우리금융 챔피언십 2연패… 첫 타이틀 방어 성공
이, KLPGA 챔피언십 우승… 투어 통산 11승 거둬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성재가 프로 생활에서 첫 타이틀을 방어에 성공했다.

임성재는 28일 경기도 여주 페럼클럽(파72·7232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하나와 버디5개, 보기 4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가 된 임성재는 공동 2위 이정환, 문동현(이상 10언더파 278타)을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억원이다.

후원사가 주최하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이룬 임성재는 2019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을 포함해 KPGA 투어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PGA 투어에서 2승을 보유하고 PGA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도 2승을 거뒀던 임성재가 한 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임성재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선두에 5타 차 뒤진 공동 4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해 역전극으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올해도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에 두 타 뒤진 공동 3위였다가 역전 우승을 일궈 'PGA 투어 클래스'를 뽐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챔피언십에서는 이정민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왕좌에 등극했다.

이정민은 28일 경기도 양주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6554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3억원)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1개로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 합계 23언더파 265타를 기록한 이정민은 19언더파 269타의 전예성을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2억3400만원을 받은 이정민은 투어 통산 11승을 거뒀고 메이저 대회에서는 처음 우승했다.

이 대회 전 최근 우승은 2022년 12월 PLK 퍼시픽링스 코리아챔피언십으로 16개월 전이었다.

이정민이 국내에서 열린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 제5회 롯데 칸타타 여자오픈 이후 이번이 거의 9년 만이다.

이정민이 이날 작성한 23언더파 265타는 KLPGA 투어 72홀 최소타 타이기록이다. 연합뉴스

임성재(왼쪽)의 최종 라운드 경기 모습(KPGA)과 이정민의 경기 모습(KLPGA). 연합뉴스

넉달 만의 득점… 황희찬, 리그 11호 골

울브스, 루턴에 2-1 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의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넉 달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리그 11호 골을 터뜨렸다.

울버햄프턴은 28일(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3-2024 프리미어리그(EPL)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루턴 타운에 2-1로 승리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이 전반 39분 울버햄프턴의 선제골을 넣었다. 마테우스 쿠냐의 패스를 받아 골지역 왼쪽까지 돌파해 들어간 황희찬은 수비수 하나를 따돌리고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해 12월 브렌트퍼드전에 이어 4개월 만에 터진 황희찬의 리그 11호 골(3도움)이다.

황희찬은 1~2월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리그 경기에 뛰지 못했고 3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결장했다. 지난 13일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33라운드를 통해 부상에서 복귀한 황희찬은 4번째 경기에서 골맛을 봤다.

특히 지난 25일 29라운드 순연경기 본머스전(0-1 패)에서 헤더로 골을 넣고도 동료의 불필요한 파울로 득점을 날린 아쉬움을 털어냈다.

골 세리머니 펼치는 황희찬. 연합뉴스

11골은 황희찬의 EPL 한 시즌 최다 득점이다. 데뷔 시즌인 2021-2022시즌엔 5골, 지난 시즌엔 3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엔 앞선 득점 기록을 훌쩍 넘는 두 자릿수 득점을 일찌감치 전반기에 기록했다.

리그컵에서 넣은 1골을 더하면, 황희찬은 올 시즌 공식전 12골(3도움)을 기록 중이다.

울버햄프턴은 후반 5분 오른쪽에서 올라온 마리오 레미나의 크로스를 수비수 토티 고메스가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해 두 골 차로 앞서 나갔다.

루턴 타운은 후반 35분 칼턴 모리스가 리스 버크의 도움을 받아 만회골을 넣었다. 연합뉴스

제주고, 울산공고 꺾고 시즌 첫 승리

고교야구 주말리그 5차전
11-5 역전승… 5연패 탈출

제주고가 천신만고 끝에 울산공고를 제물로 연패를 끊으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제주고는 지난 27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24 고교야구 주말리그 경상권C 울산공고와의 5차전에서 11-5 역전승을 거두며 올 시즌 첫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제주고는 리그 3연속 콜드게임패와 신세계이마트배 예선전 탈락 등 5경기 연패의 늪에서 탈출했다.

제주고는 이날 선발 투수의 제구력 난조와 빈공에 허덕이며 0-5로 끌려갔다. 하지만 제주고는 5회초부터 대반격에 나섰다. 상대투수의 폭투와 1번 김지혁의 2루타로 2점을 뽑으며 추격의 불씨를 당겼다.

상승세를 탄 제주고는 6회를 빅이닝으로 만들었다. 4번 최창희 중전안타를 시작으로 사사구를 포함 7번 배진우의 1타점 적시타, 9번 문혁준의 2타점 우중간 3루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1번 김지혁의 2루타로 마침내 승부를 뒤집었다. 제주고는 8회에도 9번 문혁준의 안타에 이어 2루를 훔친 뒤 2번 강지헌의 2타점 좌중간 3루타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제주고는 이날 언더핸드 김재민의 호투와 1학년 김대승의 2이닝 무실점, 유격수였던 강지헌이 2이닝 무실점 등효과적인 계투로 승리를 낚았다. 특히 강지헌은 투타에서 맹활약하며 경기를 지배했다.

제주고가 지난 27일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24 고교야구 주말리그 울산공고와의 5차전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올 시즌 첫 승리를 누렸다.

박재현 감독은 "경기 초반 상대에 흐름을 내줘 힘든 출발을 했었는데 타순을 조정하고 도루 5개를 기록하며 기동력을 살린 게 주효했다"고 첫 승의 요인을 밝혔다. 박 감독은 "동계훈련 기간 잦은 비날씨로 훈련량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수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이는 경기였다"는 소감과 함께 "비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해 실내연습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다음 주 경남고와의 경기로 주말리그 전반기가 마무리가 되며, 황금사자기와 청룡기 출전팀이 가려지게 된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김하성, 황금장갑 받았다… 트로피 안고 활짝

2023시즌 골든글러브 수상

2023시즌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내야수 김하성(28)이 뒤늦게 황금장갑을 받았다.

김하성은 2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 경기를 앞두고 골드글러브 전달식에 참석해 롤링스사 관계자들로부터 금색 글러브 트로피를 전달받았다.

골드글러브는 1957년부터 MLB 포지션별 최고의 수비수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야구용품업체 롤링스사가 주관한다.

김하성은 지난해 2루수, 3루수, 유격수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뽐냈고, 30개 구단 감독과 팀당 최대 6명으로 이뤄진 코치진의 투표, 미국야구연구협회(SABR)의 수비 지표를 합쳐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롤링스사는 따로 시상식을 열지 않았고, 올 시즌 수상자들의 경기 현장에서약식으로 황금장갑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 시즌 우익수 부문 골드 글러브와 플래티넘 글러브를 수상한 팀 동료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도 전달식에 함께 참석했다. 연합뉴스